

중국어어음습득에서 모국어어음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

지 경 남

1. 서 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과학연구를 혁명실천과 결합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사회과학리론을 새로운 높이로 더욱 발전풍부화시켜야 합니다.》

외국어학습에서 발음습득은 모국어발음의 영향으로 하여 극복하기 힘든 하나의 난점으로 되고있다.

세계의 모든 언어속에 포함된 어음들은 어음비교측면에서 놓고볼 때 크게 서로 동일한것과 서로 유사한것, 해당 어음체계에 고유한것 등 세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외국어의 어음에 대한 음성학적식별을 모국어어음에 기초하여 진행하며 목적어의 어음습득에서도 모국어어음과의 대비속에서 관찰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외국어습득의 기초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속에서 이러한 어음대비는 어음습득에 유리한 조건과 함께 불리한 조건도 형성해준다. 이것은 어음습득단계의 학습자들속에서 발음오류가 대체로 목적어의 발음을 그와 유사한 모국어의 발음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서 표현된다.

지난 시기 중국어어음습득과 관련한 연구들이 적지 않게 진행되였다.

림도(林焘)는 《어음연구와 대외중국어교수》(《语音研究和对外汉语教学》)에서 중국어발음을 습득할 때 서양식발음과 어투가 발음되어나오는 기본원인은 자음과 모음에 대한 습득이 아니라 성조와 성조보다 더 높은 어음층차에 있다고 여기면서 오래동안 교재작성과 교수에서 자음과 모음에 대한 교수만을 강조하고 억양, 어투 등에 대한 학습과 모방과정을 소홀히 대한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어음학습은 사실 일종의 모방활동으로서 글자의 음을 모방할뿐아니라 소리마디들에 해당하는 말소리의 강약과 높낮이, 어조형식을 모방해야 하며 이러한 모방과정이 전반적인 어음습득에 관통되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왕온가(王韞佳)는 《중국어어음연구와 중국어어음교수와의 결합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汉语语音研究与汉语语音教学接口中的若干问题》)에서 중국어교수실천과 결합하여 중국어철음방안문제, 《儿》화와 경성문제, 성조와 어조문제 등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여기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어음교수에서 거둔 구체적인 성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해야 하며 어음리론연구가 어떻게 해야 실천응용과 더 잘 결합되게 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라고 밝혔다.

모세진(毛世桢)은 《대외중국어어음교수에 대한 분석》(《关于对外汉语语音教学的反思》)에서 어음교수에서는 웅당 대상에 따라 교수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서술하면서 《의미표현-규범-표정-형식화》의 단계에 따라 학습자들의 실천능력을 계발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어음의 습득과 발성은 련관성이 강하기때문에 지나치게 발성의 정확성을 강조하지 말고 학습자들에게 습득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주어도 발성의 정확성을 보장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어어음교수에서 음운위주의 교수와 말소리흐름위주의

교수중에서 어느것이 합리적인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말소리흐름에 대한 교수가 총체적으로 볼 때 음운위주의 교수보다 중국어어음체계의 현실과 어음습득규칙에 더 부합된다고 긍정하면서 교수실천에서 제기되는 다음의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 제기하였다. 첫째로, 후단계에서 비교적 오래동안 말소리흐름교수를 진행한다고 하여 첫 단계에서의 어음교수를 홀시하는것이며 둘째로, 말소리흐름교수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며 교수시간과 교수단계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아직까지 정확히 논의된 것이 없다는것이다.

맹주억(孟柱亿)은 《어음교수에서의 오류문제에 대한 시론》(《试论语音教学中的误导问题》)에서 3성과 특수한 정황에서의 경성, 경음, 발음, 읽기음, 성모와 운모, 성조에 대한 교수순차측면에서 나타나는 일부 오류들을 라렬하고 이러한것을 바로잡는데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제기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중국어어음습득방법의 내용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까지 중국어어음교수에서 어음오유현상에 대한 관찰과 분석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개별적인 어음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해당 모국어어음의 영향과의 관계속에서 어음오유의 원인을 분석한 실례는 상대적으로 적다. 목적어의 어음과 모국어의 어음사이의 영향관계에 대하여 셀린커(Selinker, 1972)와 힐텐스탐 및 아브라함손(Hylténstam & Abrahamsson, 2003)이 제기한 《어음의 화석화》(fossilization) 문제는 중국어학습자들속에서도 자주 보는 현상이다.

외국어어음습득에서 모국어어음의 영향을 받는 요소는 개별적인 사람들의 각이한 발음특징에서 표현되지만 보다는 공통적인 발음경향을 가지는 경우가 더 많다.

목적어의 어음을 비교적 정확하게 습득하였다고 하여도 모국어어음의 영향에 의한 일련의 결함들은 의연히 존재하게 된다.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에 대하여 중국어교수의 첫 단계인 어음교수를 충분하게 진행하지 못한다면 모국어어음의 영향으로 인한 《어음의 화석화》가 더욱 심해질것이며 이것은 중국어에 대한 어감생성과 인식 및 구사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우기 중국어를 2외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의 어음습득에서는 모국어어음의 영향뿐 아니라 1외국어의 어음영향도 받는다. 이때 성조와 같은 중국어보통말의 음계특징이 다른 자연언어들과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어음대비학측면에서 대상에 따른 습득방법을 체득하는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중국어학습자들이 중국어어음을 습득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난점들과 그 극복방도에 대하여 중국어의 성모와 운모, 소리마디의 《儿》화 등 중국어의 일부 어음체계에 따라 분석하려고 한다.

2. 본 론

2.1. 중국어성모습득에서의 난점과 극복방도

외국어의 어음체계에는 모국어와 서로 같은 어음들도 있고 서로 다르거나 전혀 없는 어음들도 있다. 때문에 모국어에도 존재하는 서로 같은 어음은 습득하기 쉽지만 그와 다른 어음은 습득하기 어렵다.

현대중국어보통말에는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운모뒤에만 놓이면서 성모로 되지 않

는 코소리자음 [ŋ]을 제외하면 21개의 자음이 있는것으로 된다. 이 21개의 자음은 중국어에서 곧 21개의 성모로 된다.

조선어에는 19개의 자음이 있다. 중국어에는 조선어의 자음 《ㅇ》에 해당되는 성모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반모음 《y》와 《w》에서 발음될뿐이다. 또한 조선어의 된소리 자음에 해당한 성모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된소리로 발음될수 있는 순한소리자모에 해당한 성모가 1성과 4성으로 발음될 때 된소리로 발음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배제하면 조선어의 어음체계에 없는 중국어의 성모는 다음과 같다.

입술이소리 f[f]

혀끝뒤소리 zh[tʂ], ch[tʂ], sh[ʂ]

우선 조선어에는 입술이소리(경순음) 《f》가 없기때문에 일부 중국어학습자들은 중국어성모 《f》를 발음할 때 입술이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와 류사하다고 생각되는 두입술소리(량순음) 《ㅂ[p]》와 《ㅍ[pʰ]》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실례로 중국어에서 《吃饭》(밥을 먹다, chīfàn)을 《chīpàn[tʂʰ⁵⁵fan⁵¹]》으로, 《方法》(방법, fāng fǎ)를 《pāng pǎ[pɑŋ⁵⁵pa²¹⁴]》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입술이소리와 두입술소리의 각이한 발음부위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주는것이 중요하다. 물론 발음동작을 천천히 수행하면서 보여주는 방법으로 입술이소리의 동작을 확대시키는것도 효과적이지만 모방력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는 연필로 웃입술을 울려 웃입술이 아래입술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이어 웃이발이 아래입술을 가볍게 물게 하여 날숨이 마찰되면서 발음하게 하는 방법이 더 간편하고 실용적이어서 학습자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번 연습하면 인차 입술이소리 《f》를 발음할수 있게 된다.

혀끝뒤소리 《zh[tʂ], ch[tʂ], sh[ʂ]》는 중국어학습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발음중의 하나이다. 혀끝뒤소리를 습득시키기 위하여서는 먼저 혀끝앞소리에 대한 습득을 선행시켜야 한다. 조선어의 혀끝앞소리 《ㅈ[tʃ], ㅊ[tʃʰ], ㅅ[s]》는 중국어의 혀끝앞소리인 자음 《z[tʃ], c[tʃʰ], s[s]》와 같기때문에 습득하기 편리하다. 그러나 조선어에는 혀끝뒤소리가 없기때문에 중국어의 혀끝뒤소리 《zh[tʂ], ch[tʂ], sh[ʂ]》를 소리빛갈측면에서 그와 비슷하게 들리는 혀끝앞소리로 대신하거나 혀끝뒤소리와 혀끝앞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실례로 《出租车[chūzūchē]》(택시)를 [tʂʰ⁵⁵tsu⁵⁵tʂʰ⁵⁵]로, 《老师[lǎoshī]》(선생님)를 [lau²¹⁴ʂ⁵⁵]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부터 혀끝앞소리와 혀끝뒤소리와 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어의 혀끝뒤소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줄수 있다. 실례로 《s》와 《sh》의 각이한 혀위치를 보여주는 발성기관해부도를 보여주면서 《sh》의 발음요령을 알려줄수 있다. 그리고 터침소리 《zh[tʂ]》와 터스침소리 《ch[tʂʰ]》에서 중국어학습자들이 많은 경우 날숨저축을 충분히 하지 않아 잘 발음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준비, 날숨저축, 발음의 세가지 단계를 각각 나타내는 세장의 그림을 현시하고 동시에 손동작으로 발음부위와 과정을 보여준다.

혀끝뒤소리의 혀위치를 나타내는 손동작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른손바닥을 위로 향한 상태에서 왼손바닥우에 가져다댄다. 왼손가락을 아래턱으로 가정하고 오른손가락을 혀로 가정한다. 오른손가락을 직선으로 편 상태에서 왼손가락과 서로 접촉하는 동작이 혀끝앞소리를 발음할 때의 혀위치이며 오른손가락을 약간 쳐들고 뒤로 좀 수축해주는 동작이 혀끝뒤소리를 발음할 때의 혀위치라는데 대하여 설명해준다. 특히 혀끝뒤소리의 혀위치에 대하여 설명해줄 때에는 교수자가 직접 손동작과

함께 입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혀끝을 위로 쳐들고 경구개앞부위까지 가져다대고 시범적으로 발음을 진행한다. 이때 쳐든 혀끝을 움직이지 말며 만약 움직이면 혀끝뒤소리가 혀끝앞소리로 발음될수 있다는것과 그렇다고 혀를 지나치게 쳐들면 안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해주어야 한다. 혀위치를 확정한 다음에는 모방련습과 식별련습을 조직한다.

모국어에 없는 목적어의 어음도 습득에서의 난점으로 되지만 모국어와 목적어의 어음사이에 존재하는 서로 비슷한 어음도 습득에서의 난점으로 되고있다. 혀끝뒤흐린자음 《r[z]》가 대표적인 실례이다. 조선어의 자음 《ㄹ》은 표기측면에서 볼 때 중국어의 혀끝가운데소리 《l[l]》와 혀끝뒤소리 《r[z]》에 다같이 대응된다. 여기서 중국어의 《l[l]》와 조선어의 《ㄹ[r]》은 혀끝가운데소리로서 발음부위가 같지만 발음방법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중국어의 《l[l]》은 혀옆소리이며 발음할 때 혀끝이 윗이몸과 접촉하면서 날숨이 혀의 량옆으로 흘러나온다. 하지만 조선어의 《ㄹ[r]》은 단전동음(혀나 입천장의 늘어진 부분 등 탄력성있는 발음기관을 한번 떨려 내는 소리)이며 발음할 때 혀끝이 윗이몸을 묘준하여 잠깐 가볍게 스치면서, 날숨이 혀끝과 윗이몸사이에 형성된 장애를 터치면서 흘러나온다.

그렇다고 중국어를 배우는 우리 학습자들이 《l[l]》에 대한 습득에서 애로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조선어에서 《ㄹ[r]》가 말소리흐름속에서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l]라는 음으로 변화되기때문이다. 우선 《ㄹ[r]》은 《말[mal]》, 《갈[kal]》과 같이 운미(글자운의 마지막소리)로 쓰일 때 [l]로 변화된다. 또한 《갈라지다[kala...]》와 같이 운두(글자운의 첫소리) 《ㄹ》가 운미 《ㄹ》과 나란히 놓일 때 운두 《ㄹ》가 [l]로 발음된다. 중국어의 《l[l]》와 《r[z]》의 구분은 우와 같은 조선어의 《ㄹ[r]》와 《ㄹ[l]》의 구분을 통하여 설명해줄수 있다. 그러나 조선어에서 자음 《ㄹ》가 소리마디앞에 놓일 때 대체로 [l]로 발음되기때문에 중국어학습자들속에서는 자주 《rè》를 《lè》로, 《rán》을 《lán》으로 발음하는것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앞에서 본 구분방식으로는 중국어의 혀끝뒤소리 《r[z]》에 대한 습득을 정확하게 시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r[z]》의 특징은 혀끝을 앞입천장에 붙이고 성대를 진동시키는 흐린소리라는것이다. 때문에 《r[z]》를 습득시킬 때에는 조선어에서 《ㄹ》가 흐린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를 실례로 들면서 자음 《r》의 소리빛깔을 기억시키고 여기에 《an》, 《ang》, 《uo》, 《e》 등과 같은 운모들을 결합시켜 발음련습을 시키고 다시 자음 《r[z]》와 《l[l]》의 대비련습을 시키는것이 효과적이다.

례: 《하라》 - 《라》 - 《ㄹ》

rè - lè rù - lù rào - lào

ròu - lòu rán - lán ràng - làng

réng - léng ruò - luò

ruǎn - luǎn rui - lèi rì - lì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먼저 《sh[ʃ]》를 길게 발음시켜 성대를 진동시킨 다음 련이어 《r[z]》를 발음시키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이다.

련습은 다같이 따라읽기, 개별적으로 따라읽기, 듣고 판단하기, 듣고 받아쓰기 등의 형식으로 진행할수 있다.

혀바닥소리 《j[tʃ], q[tʃʰ], x[ç]》도 중국어학습자들이 습득하기 힘들어하는 발음중의 하나이다. 실례로 조선어에도 소리빛깔이 이와 비슷한 혀끝앞소리 《ㅈ[tʃ], ㅈ[tʃʰ], ㅅ[s]》가 있지만 입술을 벌려주는 높은모음 《ㅣ[i]》의 영향을 받아 중국어의 철음 [çi]를

발음할 때 자주 혀끝앞소리인 [si]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발음부위의 정확한 움직임을 설명해주는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실례로 <[j[ɕ]]>에 대한 발음을 습득시킬 때 먼저 입을 크게 벌리고 혀끝을 아랫이발뒤면에 붙이고 유지하도록 한다. 다음 혀바닥을 올려 혀바닥앞부위가 경구개앞부위에 가닿게 한 다음 날숨이 좁은 구멍사이로 마찰되어 나오도록 한다. 그러면 성대가 진동됨이 없이 <[j[ɕ]]>라는 발음이 나오게 된다. 혀바닥소리를 습득시킬 때 손동작을 리용하는 방법도 보조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두손을 우아래로 마주하고 아래손의 손등을 옷손의 손바닥과 대치시킨다. 아래손의 손가락끝들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손가락관절부위들을 구부려 옷손의 손가락 가운데앞부분에 붙인다.

중국어의 혀바닥소리 <[q]>와 <[j]>는 거센소리와 순한소리의 대립으로서 먼저 이 성모들을 습득시킨 다음 스침소리 <[x]>를 습득시키는것이 합리적이다. 반대로 스침소리 <[x]>를 먼저 습득시키고 거센소리 <[q]>와 순한소리 <[j]>를 습득시키면 효과성이 떨어진다. 교수실 천측면에서 볼 때 중국어학습자들은 많은 경우 [tɕi], [tɕi]에 비해 [ɕi]를 혀끝앞소리 [si]로 발음하기 쉽기때문에 먼저 <[q]>, <[j]>의 발음요령을 습득시키고 <[x]>를 습득시키는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다.

목구멍스침소리(후두마찰음)인 <[h[x]]>에 대한 습득에서도 일련의 오류가 발생한다. 중국어의 목구멍스침소리 <[h[x]]>는 일명 혀뿌리소리라고도 하며 날숨장애부위가 혀뿌리와 연구개이지만 조선어의 <[ㅎ[h]]>는 목구멍스침소리로서 발음부위가 <[h[x]]>보다 더 뒤로 처지고 마찰정도도 <[h[x]]>보다 작으며 발음되는 음운소리값도 <[h[x]]>보다 좀 연하고 가볍다. 구체적인 말소리흐름속에서 조선어의 <[ㅎ[h]]>는 말소리변화현상이 나타난다. 실례로 [i]앞에 놓이는 <[ㅎ[h]]>의 날숨장애점은 앞으로 향해진다. 그러나 [w]와 [ə]앞에 놓일 때에는 [w], [ə]의 혀위치의 영향을 받아 <[ㅎ[h]]>가 중국어의 <[h[x]]>와 같은 혀뿌리소리로 변화된다. 실례로 중국어학습자들은 <喝水[hē shuǐ]>(물을 마시다)는 [hə⁵⁵tɕuei²¹⁴]로 발음하고 <过河[guò hé]>(강을 건느다)는 [guo⁵¹xɤ³⁵]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h]와 [x]의 미세한 차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서는 [a]앞에 놓이는 조선어의 자음 <[ㅎ[h]]>가 중국어의 성모 <[h]>와 완전히 같으며 [ə]앞에 놓이는 조선어의 자음 <[ㅎ[h]]>는 중국어의 성모 <[h]>보다 좀 느슨하게 발음해준다는데 대하여 통속적으로 해설해주는것이 효과적이다.

중국어학습자들은 또한 중국어의 목구멍스침소리 <[h[x]]>를 모음 <[u[u]]>나 <[uo[uo]]>와 결합시켜 발음할 때 자주 이 성모를 청없는두입술스침소리인 [Φ]나 청없는입술이스침소리 <[f]>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老虎[lao³⁵xu²¹⁴]>(범)를 [lao³⁵Φu²¹⁴]나 [lao³⁵fu²¹⁴]로, <狐狸[xu³⁵li]>(여우)를 [Φ³⁵li]나 [fu³⁵li]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겹모음 <[ua]>, <[uai]>, <[uan]>, <[uang]>과 결합시켜 발음할 때 이러한 오류가 농후하게 나타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h[x]]>와 <[f[f]]>의 각이한 발음위치에 대하여 설명하는것과 동시에 <[h]>와 <[u]>가 결합될 때 두입술을 원형으로 수축하며 약간 앞으로 내밀어서 두입술마찰소리나 입술이마찰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해 주어야 한다. 좋기는 대비련습을 통하여 <[h[x]]>와 <[f[f]]> 및 <[p]>, <[b]>와의 차이점을 인식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례: 婆(pó) — 佛(fó) — 活(huó)

谱子(pǔzi) - 斧子(fǔzi) - 胡子(húzi)
 北极(běiji) - 飞机(fēijī) - 灰鸡(huījī)

2.2. 중국어운모습득에서의 난점과 극복방도

조선어에는 10개의 홀모음과 11개의 겹모음이 있다. 그중 조선어의 홀모음 《ㄱ》, 《-》, 《ㅣ》, 《ㅏ》는 중국어의 운모 [y], [ɿ], [ʌ], [ɤ]와 류사하다. 그러나 그 류사성과 일부 음운쓰임규칙에서의 차이점으로 하여 해당 중국어의 운모습득에서 적지 않은 애로들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먼저 중국어의 운모 《ü[y]》의 습득에서 제기되는 난점들과 그 극복방도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조선어의 《위》나 중국어의 운모 《ü》는 모두 국제발음기호 [y]로 표기되지만 실지 음운소리값은 다르다. 다시말하여 중국어의 운모 《ü[y]》는 조선어의 《위》와 비슷하게 들리지만 조선어의 홀모음 《ㄱ》은 사실 모음 [u]와 [i]가 합쳐진 하나의 새로운 독자적인 모음으로서 [wi]라고 발음하며 마지막에 운미가 《ㅣ》라고 뚜렷하게 발음되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중국어학습자들속에서 자주 중국어의 운모 《ü[y]》를 [wi]라고 발음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교수자가 중국어의 홀모음 《ü[y]》와 조선어의 홀모음 《ㄱ[wi]》가 비록 모두 높은등근입술앞홀모음이지만 입모양에서 차이가 나는데 대하여 강조해주어야 한다. 우선 두 입술을 동그랗게 수축하여 작은 구멍을 형성한 다음 성대를 진동시켜 《ü[y]》를 발음하게 한다. 다음 학습자들이 이 모음을 모방할 때 두 입술이 마찰되는 반모음 [w]에 [i]가 섞인 [wi]가 나오지 않도록 우아래입술을 접촉시키지 말며 특히 입을 좌우로 벌려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입술을 고정시켜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해주어야 한다. 학습자들에게 《ü[y]》를 충분히 습득시키기 위하여 교수자가 먼저 《ü[y]》의 발음과정을 수행한 후 등근입술모양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학습자들이 모방하도록 한다. 그리고 《ü[y] - i[i] - ㄱ[wi]》를 대비적으로 연속 발음하게 하여 해당 모음들의 차이점을 학습자들이 체감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중국어의 운모 《-i[ɿ]》, 《-i[ʌ]》의 습득에서 나서는 난점들과 그 극복방도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조선어 혀끝앞소리의 영향과 중국어의 모음자모 《i》의 음절구성규칙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하여 중국어학습자들속에서는 모음 [ɿ]나 [ʌ]에 대한 발음습득에서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의 오류가 발생한다.

첫째로, 중국어의 운모 《-i[ɿ]》, 《-i[ʌ]》를 [i]로 발음하는것이다.

둘째로, 중국어의 운모 《-i[ɿ]》, 《-i[ʌ]》를 [ə]나 [w]로 발음하는것이다. 실례로 [tsɿ]와 [ʌ]를 자주 [tsi]와 [tɕwi]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교수자는 [ɿ]와 [ʌ]를 습득시킬 때 다음과 같이 판서를 진행한다.

(i[i]) yi ji qi xi
 (-i[ɿ]) zi ci si
 (-i[ʌ]) zhi chi shi ri

그다음 《i》의 각이한 발음들을 시범적으로 진행하여 발음부위를 정확히 인식시키고

해당 소리마디들에 대한 대비련습을 진행하게 한다.

례: jī - zhī - zī, xǐ - sǐ - shǐ,
qí - cí - shí, lì - nì - rì

다른 한가지 방법은 길게 끌어서 발음하는 방식과 함께 조선어와 중국어의 유사한 어음들을 서로 대비시키는것이다. 실례로 성모 《j, q, x》를 길게 끌어주면서 모음 《i[i]》를 발음할 때 이것이 조선어의 모음 《ㅣ[i]》와 비슷하다고 설명해주고 성모 《z, c, s》를 길게 끌어주면서 혀끝앞모음 《i[i]》를 발음할 때와 성모 《zh, ch, sh》를 길게 끌어주면서 혀끝뒤모음 《-i[ɿ]》를 발음할 때 이것이 조선어의 모음 [u]와 비슷하다고 설명해준다. 이러한 비교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중국어의 성모 《z, c, s》뒤에 놓이는 《i》는 혀끝앞소리인 《-i[ɿ]》이며 성모 《zh, ch, sh》뒤에 놓이는 《i》는 혀끝뒤소리인 《-i[ɿ]》이고 기타 성모뒤에 놓이는 《i》는 모두 높은길쭉입술혀끝앞소리인 《i[i]》라는데 대하여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중국어의 성모 《z, c, s》와 《zh, ch, sh, r》, 《j, c, x》의 운모 《i, u》와의 결합대비표를 제시해줄수도 있다. 이를 통해 중국어의 운모 《u》의 음절구성규칙과 그에 따르는 각이한 발음내용들에 대하여 동시에 설명해줄수 있다. 이때 《ü》행의 운모와 성모 《j》, 《q》, 《x》가 서로 결합되는 경우 《ü》우의 두점은 생략한다는데 대하여 알려준다. 동시에 《ü》행의 운모와 성모 《n》, 《l》와 서로 결합되는 경우 《ü》우의 두점은 그대로 쓰인다는데 대하여 따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보충해줄수 있다. 중국어의 성모 《z[ts]》, 《c[tɕ]》, 《s[s]》는 혀끝앞소리이고 성모 《j[tɕ]》, 《q[tɕ]》, 《x[c]》는 혀바닥소리이지만 모두 조선어자음 《ㅈ》, 《ㅊ》, 《ㅅ》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국어의 《zu》와 《ju》의 발음에서 운모 《u》가 [u]로 발음되는가 [y]로 발음되는가는 조선어자음 《ㅈ》에 해당하는 《z》와 《j》의 각이한 표기문자에 의해 구별될수 있지만 중국어의 《nu》와 《nü》의 발음에서 운모 《u》가 [u]로 발음되는가 [y]로 발음되는가는 조선어자음 《ㄴ》에 해당하는 표기문자가 《n》 1개밖에 없으므로 성모표기에서가 아니라 운모표기에서 두점을 쳐주는것으로 구분한다.

례: 성모 《z, c, s》, 《zh, ch, sh, r》, 《j, c, x》와 운모 《i, u》와의 결합대비표

| 운모 성모 | i(으) | u(우) | 운모 성모 | i(이) | u(위) |
|----------|-------|------|----------|------|------|
| z | -i[ɿ] | u[u] | j | i[i] | u[y] |
| c | -i[ɿ] | u[u] | c | i[i] | u[y] |
| s | -i[ɿ] | u[u] | x | i[i] | u[y] |
| zh | -i[ɿ] | u[u] | (n, l) | i[i] | ü[y] |
| ch | -i[ɿ] | u[u] | | | |
| sh | -i[ɿ] | u[u] | | | |
| r | -i[ɿ] | u[u] | | | |

운모란에서 괄호안의 내용은 조선어의 해당 모음과 발음이 유사하므로 참고적으로 밝힌것이며 완전히 같은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e》가 나타내는 반높은가운데모음인 [ə]와 반높은가로입술뒤모음 [ɤ]의

습득에서 제기되는 난점들과 그 극복방도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중국어학습자들은 모국어어음의 영향을 받아 중국어의 이러한 모음들을 자주 높은 뒤모음인 [u]로 발음한다. 실례로 《特[tə⁵¹]》(특별히)를 [t'w⁵¹]로, 《哥[kɤ⁵⁵]》(형님)를 [kw⁵⁵]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원인은 입을 좌우로 충분히 벌려주지 않는데 있다. [ə]와 [ɤ]는 다같이 반높은모음으로서 이 모음을 습득시킬 때 두손으로 입술을 양옆으로 벌려주도록 고정시키고 발음하도록 할수 있다.

다음으로 겹모음들인 《uo》, 《ou》, 《-ui》, 《iu》, 《-un》, 《-ün》의 습득에서 제기되는 난점들과 그 극복방도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이 겹모음들에 대한 습득에서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첫째로, 성모와 결합될 때 2개 혹은 3개의 운모사이에 휴지를 주어 1개의 소리마디를 2개의 소리마디처럼 발음하는것이다. 실례로 《错[ts'uo⁵¹]》(틀리다)를 [ts'uwə]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로, 중국어의 겹모음을 발음할 때 성모와 운모를 분리시키지 않고 뛰어넘는 식으로 발음하거나 겹모음을 조선어의 그와 류사한 홀모음으로 대신하여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u》와 《o》 혹은 《o》와 《u》사이에 련결모음이 없이 1개의 음으로 축소하여 발음하는 현상이 그러하다. 실례로 《说[shuō]》(말하다)를 [so]나 [su]로, 《久[jiǔ]》(오래다)를 [tə+iou]로, 《鬼[guǐ]》(귀신)를 [g+uei]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성모를 상대적으로 길게 끌어주면서 모음을 흘시하였기때문이다. 특히 《ai》, 《ei》, 《ao》, 《ou》와 같은 두겹모음을 조선어의 그와 류사한 홀모음으로 발음하는 현상이 매우 농후하다.

례: 《ai[ai]》를 《ㅐ[ɛ]》로 발음하는 경우(《来[lái]》를 [lɛ³⁵]로 발음)

《ei[ei]》를 《ㅔ[ɛ]》로 발음하는 경우(《妹[mèi]》를 [me³⁵]로 발음)

《ao[au]》를 《ㅑ[ɔ]》로 발음하는 경우(《好[hǎo]》를 [xɔ²¹⁴]로 발음)

《ou[ou]》를 《ㅓ[ɔ]》로 발음하는 경우(《走[zǒu]》를 [tɔ²¹⁴]로 발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수자는 먼저 중국어겹모음의 특징이 앞의 음과 뒤의 음이 서로 이어지는 과정이며 그사이에는 련결모음이 존재한다는것, 이음과정은 천천히 진행되면서도 끊기지 않으며 그중 기본모음이 뚜렷하게 발음되도록 입모양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데 대하여 설명해준다. 다음 학습자들에게 겹모음 《uo[uo]》의 발음시 입열림크기가 점차 커지는 과정과 《ou[ou]》의 발음시 입열림크기가 점차 작아지는 과정 등 해당 겹모음들의 입모양변화과정을 과장법으로 보여준다. 이외에 《ui》, 《iu》, 《un》과 같은 겹모음들이 실지로는 《uei》, 《iou》, 《uen》, 《üen》 등으로 발음되는데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2.3. 혀꼬부림소리 《儿》에 대한 습득에서의 난점과 극복방도

혀꼬부림소리 《儿》은 중국어에서 소리마디의 《儿》(얼)화라고 한다. 다시말하여 소리마디의 운모뒤에 《er(儿)》을 가볍게 붙여서 발음하는것을 말한다. 《儿》화된 소리마디는 한자로 표기하면 2개의 한자로 되지만 발음할 때는 1개 소리마디로 되며 철음으로 표기할 때는 《r》만 표기한다. 《儿(er)》화를 나타내는 한자는 《儿》이며 최근시기부터는 서면으로 나타낼 때 첨자형식을 리용하여 《儿(ér)》과 구분하기도 한다.

례: 花儿(huār) 盖儿(gàr) 塞儿(sār)

보는바와 같이 《儿》은 독자적인 소리마디로 되지 못하고 뒤불이로 되면서 앞소리마디와 융합되어 혀꼬부림소리를 내는 기능만을 수행한다. 중국어표준어의 운모는 《er, e》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儿》화될수 있다.

《儿》화는 모음에 혀꼬부림동작이 추가되었음을 나타낼뿐아니라 어떤 때에는 모음의 소리빛갈도 변화시킨다. 혀꼬부림동작만 추가된 《哥儿, 花儿》과 같은 단어에서의 《儿》화는 조선어의 《ㄹ》받침과 비슷하게 발음되는것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습득할수 있지만 《子儿, 鸡儿, 馅儿, 本儿, 水儿, 贝儿, 棒儿》과 같은 단어에서의 《儿》화는 모음의 증가, 감소, 교체와 혀꼬부림동작의 추가 및 코소리화 등 여러가지 변화로 하여 습득에서 일정한 애로를 느낀다. 실례로 학습자들은 《儿》화된 소리마디를 2개의 소리마디로 발음하거나 각이한 《儿》화의 발음형식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조선어의 《ㄹ》받침처럼 발음하려고 한다. 때문에 《儿》화된 소리마디의 발음규칙에 따른 각이한 《儿》화의 발음현상을 유형별로, 대비적으로 습득시키는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儿》화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예측할수 있는 어음현상이 아니기때문에 규칙을 따지지 말고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모방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주어야 한다. 《儿》화는 중국에서 지역마다 큰 차이를 가지고있으며 현재 중국의 표준말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때문에 반드시 《儿》화를 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 더우기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살고있는 중국사람들은 표준어로 말을 할 때 《儿》화를 하지 않아도 표현에서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다. 《儿》화는 단지 표현의 섬세성을 나타낼뿐이다. 실례로 베이징사람들이 《儿》화를 즐겨쓰는데 《冰棍儿》(얼음과자)을 《儿》화하지 않으면 마치도 《棍》이 원래의 의미인 《몽둥이》처럼 들릴수 있다. 그러나 《儿》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단어를 《얼음몽둥이》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儿》화는 개별적인 단어를 통한 습득보다 대체로 문장속에 섞이였을 때 학습자들이 발음하기 힘들어한다. 《儿》화를 하지 않아도 의미전달에서 큰 장애가 없다고 하여 학습자들이 그에 대한 습득을 소홀히 한다면 오히려 《儿》화에 대한 청취에서 애로를 느끼게 된다. 그것은 이미 알고있는 단어일지라도 《儿》화하면 각이한 소리빛갈변화를 일으켜 전혀 다른 단어처럼 들리기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중국어학습자들에게 소리마디의 《儿》화에 대한 발음규칙을 습득시키는것과 함께 《儿》화되기 이전과 이후의 발음상 대응관계에 대하여 대비적으로 구별시키기 위한 연습도 병행시켜야 한다.

례: 《儿》화된 후 ← 《儿》화되기 전

[ər] ← [ɿ], [ʊ], [ei], [ɤ], [ən], ≡[əŋ]

[iər] ← [i], [in], [iɛ], [iɛn], ≡[iŋ]

[uər] ← [uəi], [uən]

[yər] ← [y], [yn]

[ar] ← [a], [ai], [an], ≡[aŋ]

[uar] ← [ua], [uai], [uan], ≡[uaŋ]

《≡》뒤에 있는 발음은 《儿》화를 거쳐 코소리모음으로 변한다. 중국어학습자들은 대체로 이것을 코소리화되지 않은 모음으로 듣곤 한다.

3. 결 론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어어음습득에서는 다음의 문제들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선 중국어의 일부 성모들을 구체적인 음운소리값은 다르지만 소리빛같이 비슷한 조선어자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을 극복하고 우리 말의 자음과 유사한 중국어성모들에 대한 정확한 발음법을 습득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어의 운모습득에서 소리빛같이 비슷한 우리 말의 모음으로 발음하다나니 입모양과 혀위치를 비롯하여 조음과정에 나타나는 일련의 오류현상, 중국어의 말소리변화현상인 《儿》화를 모방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발음오류현상의 원인을 잘 알고 정확한 발음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숙련을 부단히 하여야 한다.

물론 중국어어음습득과정에는 모국어간섭을 제외한 이외의 원인으로 여러가지 오류들이 성모, 운모외에 성조를 비롯한 기타 음운들과 지어 초분절음을 비롯하여 중국어의 전반적인 말소리체계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어어음습득의 기초단계에서는 모국어어음의 영향을 극복하는것이 선차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그 성과를 교육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학생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함께 높은 외국어실천능력을 소유한 혁명인재들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중국어어음, 성모, 운모, 《儿》화